**겸손한 평화의 왕**

**<마태복음 21장 1-11절>**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4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예수님 일행이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약 1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 즉 베다니로 보내어 일을 시키십니다. 거기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십니다. 임자 있는 동물을 그렇게 그냥 끌고 와도 되나 생각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시길,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중에 예수님은 어디에 타셨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 그분이 타신 것은 나귀 새끼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 왜소하고 초라한 동물의 등에 예수님을 그냥 앉으시게 하기 그랬던지, 제자들이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겉옷들을 안장 삼아 그 위에 타십니다. 행진이 시작되고, 무리의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폅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암송하던 시편(118:25-26) 찬송의 가사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들의 이 외침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야,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예수라는 이가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야일 거라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며 궁금해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따라온 무리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이 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야로 기대하면서도, 그들 중 누군가는 마음 한 켠에 찜찜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좋은데, 저 나귀 새끼가 좀 걸리네… 저건 너무 없어보이는 모습이잖아…* 예수님 시대보다 한 세기 반쯤 전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이가 이방(셀레우코스)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쁨에 찬 환호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그가 처음 한 일은 이방 나라 왕이 들어와 이교로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 유다 마카베오와 함께 실현되지는 못하였고, 다시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라는 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유다 마카베오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신 것은 군사적인 정복에 적합한 왕가의 군마가 아니라 짐을 싣는 비천한 동물이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나귀를 탄 왕…* 복음서 기자 마태는 무엇보다 이 점을 부각시키며, 본문 5절에서 이미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부분(칠십인역)을 스가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의미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스가랴 9장 9-10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기 9절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또한 10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읽으면, 대체로 이런 뜻이 됩니다. *한 왕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며, 마침내 이스라엘과 이방에 화평을 전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리라.* 여기서 두 단어가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와 구원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화평’입니다. 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이 ‘겸손한 화평의 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는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겸손한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메시야가 오셔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가져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 사람들’,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만 응징한다면, 그들로부터만 해방된다면, 바라던 세상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문제의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또한 그들 서로간의 관계 속에 속속들이 파고들어있는 죄와, 그것이 초래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들을 보시며 슬퍼하셨고, 또한 때때로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과 죄인들을 다른 시각과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들을 배척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죄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피흘리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가 또다른 불의를 낳고, 폭력이 또다른 폭력을 낳고, 슬픔이 또다른 슬픔을 낳는 그 죄의 악순환을 끊고, 의가 또다른 의를 불러오고, 평화가 또다른 평화를 불러오고, 기쁨이 또다른 기쁨을 불러오는 구원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자기를 낮추고 모두를 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며 함께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에 시작점이 되는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놓은 그곳이 다시 만민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집이 되도록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분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위한 생명의 양식, 죄 사함의 새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밤에 몰래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온 무리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잡혀 모욕과 수난을 겪으신 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 그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찢긴 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죽어 묻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드러내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다시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얼마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있는 증인들로 다시 세워집니다. 이후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이전과는 다른 곳에 속하여 이전과는 다른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오래전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선순환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불의에 불의로 반응하지 않고, 폭력에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용납과 용서의 삶을 실천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 위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의 꽃을 피우려 애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만연한 죄를 가벼이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그것에 대해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한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겸손한 평화의 길을 따르려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온전한 평화, 온전한 승리,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겸손히 몸을 낮추고 내 주위 사람들을 끌어안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어느덧 빼어들고 있던 칼을 도로 칼집에 꽂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려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5:5)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일4:18)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만이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기적은 또다른 기적을 불러오곤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열성적인 시골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를 살리셨단 소문을 듣고 나온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이 그들의 욕망과 바람을 성취해주리라는 기대로 그분을 환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그들의 환영과 찬양을 그대로 기뻐 받으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눅19:40)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욕망과 바람을 그대로 만족시켜 주신 것은 아니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란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로 점점 옮겨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 옛날 예수님께 실망하여 등돌렸던 사람들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눅19:42)

*평화에 관한 일…* 본인들의 바람과 욕망에만 사로잡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다른 이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이 결코 소망할 수 없었던 온전한 평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평화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분의 몸을 헐어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그들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하였을까? 그래야 저 로마 녀석들을 위에서 밟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저 콧대높은 예루살렘 녀석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다 끌어안고, 다시 십자가 저 높은 곳으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2:9-11).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본문에 사람들처럼 내 삶의 현실 속에 우리 왕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셔서 뭔가를 해주시길 기다립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는가?*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이시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까? 아니,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왕을 과연 우리는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베다니 마을에 한 어린 나귀를 생각합니다. 묶여 있던 그를 어느날 그분이 풀어 데려오라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 마디에 그는 풀려나 새로운 주인 앞에 섭니다. 이어 그분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그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옆에 어미 나귀가 동행합니다. 그렇게 어린 나귀는 마침내 목적지에 이릅니다. 알고 보니 그가 태웠던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큰 일을 생각하다가 이처럼 작지만 위대한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지금 이 순간의 겸손한 순종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어딘가에 매여 있는 우리들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겸손한 평화의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의 걸음에 늘 동행하며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예수님 눈길 머문 그곳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